

떠오르는 이라크 재건시장을 선점하라

바그다드 무역관 황의태 관장
신흥시장팀 정영화 팀장
신흥시장팀 박정현 과장



CONTENTS

목 차

요 약 / 1

I. 최근동향 / 3

- 3 | 1. 최근 정세 및 치안동향
- 5 | 2. 경제동향 및 개발계획
- 7 | 3. 무역, 투자동향

II. 전략적 중요성 / 9

III. 이라크 진출현황 / 11

- 11 | 1. 경쟁국의 이라크 진출현황
- 16 | 2. 우리나라의 이라크 진출현황

IV. 우리기업의 이라크 진출전략 / 20

- 20 | 1. 진출 유망분야
- 36 | 2. 진출 확대방안

V. 이라크 진출시 유의사항 / 39

요 약

□ 최근 이라크 정세는 시아파를 중심으로 안정화 추세

- 이라크 정권은 쿠르드계 대통령, 아랍계 시아파 총리, 순니파 부통령으로 권력이 분할되어 있으며, 시아파를 중심으로 점차 안정화
- 시아파의 세력이 강화되면서 반대파인 순니파를 중심으로 시위 발생 증가, 순니파 최대정당인 이라키야와 말리키 총리간 긴장 고조
- 순니파 국가인 사우디와는 긴장관계, 터키는 집권여당간 쿠르드 지역 문제로 갈등 고조, 시아파 국가인 이란과는 관계개선 중

□ 오일달러 기반 재건사업으로 경제성장 지속

- IMF는 2013년 원유증산과 재건사업으로 이라크 GDP가 14.7% 성장할 것으로 전망 ('12년 1,306억 달러 → '13년 1,543억 달러)
- 이라크는 원유 매장량 세계 5위(1,431억 배럴), 일일원유생산량 세계 8위(340만 배럴)의 자원부국임.
- 원유생산량 증가에 따라 연간 원유판매 재정수입액이 2013년 1,250억 달러, 2016년 2,000억 달러, 2018년 2,800억 달러로 증가 전망

□ 최근 테러가 감소하면서 주요 경쟁국의 진출 급증

- 미국은 기존 원유·가스 개발분야 이외에 건설 감리, 국방, IT 통신사업으로 진출분야 다각화
- EU는 국가간 컨소시엄을 구성, 발전소, 변전소 등 인프라 사업에 주력
- 중국은 유전개발을 중심으로 진출 심화, 터키는 중소형 건설에 역점

□ 2013년~2017년 동안 주택·교통인프라, 에너지 인프라 건설, 전력·상하수도·폐수처리, 보안·IT, 의료 등 2,750억 달러 프로젝트 추진

Iraq Allocates \$275bn to New Projects

Posted on 20 September 2012. Tags: [Budget](#), [Iraq Finance 2012](#)

By [Padraig O'Hannelly](#).

Iraq's Planning Minister, Ali al-Shukri (pictured), has said the country has earmarked between \$250 billion and \$275 billion for infrastructural development projects over the next five years.

At the [Iraq Finance 2012](#) conference in London the minister called for foreign companies to invest in all sectors of the Iraqi economy, including construction, agriculture and education.



<분야별 프로젝트 추진전망(2013~2017년)>

(단위 : US억 달러)

분야	금액	분야	금액
교통인프라	460	상하수도·폐수처리	150
에너지인프라	800	보안·IT	175
전력	900	의료 및 기타	265
합계		2,750	

* 주택건설의 경우 PPP방식으로 발주되므로 프로젝트금액은 별도산정

- (주택·교통인프라) 국가투자위원회(NIC), 지방정부가 바스라, 바그다드에서 500억~800억 달러 규모 주택건설 / 철도, 메트로, 공항, 고속도로 등 460억 달러 규모 교통인프라 건설사업 추진
 - (에너지인프라) 원유, 가스 정제공장, 석유화학공장, 원유가스 파이프라인, 원유수송용 터미널 건설에 800억 달러 투자
 - (전력, 상하수도·폐수처리) 가스터빈 발전소, 태양광 발전사업 등 전력재건에 900억 달러,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한 배수관개망 구축 사업추진에 150억 달러 발주 전망
 - (보안·IT·의료) 공중경계망, 무선 통신망·전자정부 구축 사업 추진 등 보안·IT분야에 175억 달러 / 특수병원 건설, 바그다드 및 지방 종합병원 설립 등 의료분야에 175억 달러 발주 예정
-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를 활용,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고 재건 프로젝트에 적극적인 참여 필요
- 풍부한 오일달러를 기반으로 이라크의 경제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우리기업의 이라크 시장 선점이 필요한 시점임

I. 최근동향

1. 최근 정세 및 치안동향

□ 말리키 총리, 불신임안 부결로 점차 안정화 추세

- 2012년 7월, 야당의 총리 불신임안이 국회에서 부결됨으로써 점차 안정화 추세
- 쿠르드계 대통령, 아랍계 시아파 총리, 순니파 부통령으로 권력 분할
 - 쿠르드계인 현 대통령(Jalal Talabani("10.11월 취임))이 대외적 국가 대표
 - 행정실권은 시아파 총리(Nouri Al-Maliki("10.12월 취임))가 관장하는 내각책임제
 - * 행정부는 대통령 위원회 3명(Presidential Council, 대통령 및 부통령 2명)과 총리, 부총리 3명 및 30명의 장관으로 구성
- 지방 행정조직 : 총 18개 주 정부(바그다드 포함) 및 1개 자치정부로 구성
 - 주지사는 주민선거에 의해 선출된 주의원들이 간접선출
- 주정부, 별도 예산 편성권이 없어 실질적인 지방자치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음
 - 단, 북부 쿠르드 지역은 지방정부가 자치권을 갖고 독자 예산편성

□ 순니파 부통령 망명사태, 안바르주 시위사태 격화로 양대 종파 간 대립 심화

- 시아파와 순니파는 종교, 지역을 기반으로 독자적 정파 형성
 - 연방제, 석유법, 지방선거, 국가예산 배분, 키르쿠크 귀속 등 정치 현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
 - * 이라크 종파 구성 : 이슬람교(97%: 시아파 60%, 아랍계 순니파 24%, 쿠르드계 순니파 13%), 기독교 등 기타 3%

- 하세미 부통령은 테러혐의로 터키로 도피
 - 말리키 총리가 '11년 말 국회의사당 차량 폭탄테러의 배후세력으로 순니파 하세미 부통령을 지목, 종파간 긴장 지속
 - 하세미 부통령은 터키로 도피하여 은신(2012.6)

- 순니파 안바르주 대규모 시위 사태 악화로 종파간 긴장 고조
 - 2012.12월 순니파 재무부 장관 경호원을 테러혐의로 체포하면서 5주 연속 안바르주에서 시위 격화
 - 2013.1.25일 시아파 정부군 발포로 시위대 12명 사망 후 순니파 최대 정당인 이라키야와 여당간 긴장 고조
 - 이라키야당 말리키 총리에 여당장관 사퇴 권고
 - * 전력부, 문화부 등 일부 장관 휴가 처리, 차관이 업무대행

□ 정치적으로 사우디·터키와는 갈등, 이란과는 긴밀

- (사우디) 야당 의장인 순니파 알라위 측 지지로 갈등관계 지속
 - 이라크 현 시아파 정권과 대립

- (터키) 사형 선고를 받은 부통령 보호, 쿠르드 지역 테러진압 문제로 긴장관계 지속
 - 터키 외무장관이 영토분쟁지역인 키르쿠크를 방문, 갈등 심화

- (이란) 시아파가 지배권력으로 부상하며 이란과의 관계 개선 조짐

□ 미국, EU의 경제적 이권 유지노력 지속

- (미국) '11년 12월 미군 병력 철수 후 경제적 이권 유지, 자국 진출기업 보호를 위하여 군사적 영향력 지속

- (EU) 정치적 이해관계 보다는 경제분야 협력 강화 추진
 - EU-이라크 무역 투자협력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체결

2. 경제 동향 및 개발계획

□ 오일달러를 기반으로 고속 경제성장 지속

- (IMF) 2013년 원유증산과 재건사업으로 이라크 GDP 14.7% 성장 전망
 - 2012년 이라크의 GDP는 1,306억 달러로 전년대비 10.2% 성장
 - 원유 및 가스 개발, 주택, 항만, 수처리, 교통 인프라 등 재건 프로젝트 발주 활발

<최근 GDP 현황 및 전망>

(단위 : US억 달러,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전망)
명목 GDP	841	1,142	1,306	1,543
실질 GDP성장률	3.0	8.9	10.2	14.7

자료원 : IMF WEO DB('12.10월)

- 이라크 일일 원유 생산량 확대로 오일 달러 급증
 - 2012년 이라크 정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1% 증가한 1,100억 달러 기록
 - * 2012년 정부예산 1,100억 달러 → 2013년 1,400억 달러(13.6% 증가)
 - * 일일 원유생산량 '09년~'10년 210만 배럴 → '12.11월 340만 배럴

□ 주요 경제 지표(2012년)

GDP(명목)	1,306억 달러
1인당 GDP(명목)	3,882 달러
외채	503억 달러
외환 보유고	620억 달러
산업구조	제조업(58.8%), 서비스업(26.7%), 농업(11.9%)
무역규모	수출 : 90억 달러 / 수입 : 57억 달러
교역품	○ 수출 : 원유, 대추야자, 양피, 양모 등 ○ 수입 : 식품, 의약품, 기계류, 자동차 등 소비재

자료원: IMF 및 EIU

□ 원유·가스 증산 및 주택, 의료, 상수도 등 인프라 개발정책 추진

- 최근 3년간 원유·가스 증산에서 사회인프라 건설로 개발분야 확대
 - 2012년부터 항만, 병원, 수처리시설 등 사회 인프라 재건 본격화
 - 공항, 철도 등 교통분야는 2013년 하반기부터 본격시작 예정
 - 최근 3년간 재건 프로젝트 규모는 연간 350~400억 달러 규모이나 향후 5년간(2013-2017년) 총 2,750억 달러, 연간 600억 달러로 증가 전망

< 분야별 프로젝트 추진전망(2013~2017년)>

(금액 : US억 달러)

분야	금액	분야	금액
교통인프라	460	상하수도·폐수처리	150
에너지인프라	800	보안·IT	175
전력	900	의료 / 기타	175 / 90
합계		2,750	

* 주택건설의 경우 PPP방식으로 발주되므로 관련 프로젝트금액은 별도산정

* 이라크 정부발표내용을 근거로 KOTRA 바그다드 무역관에서 추산

- (주택) 향후 총 1백만 가구 추가 건립 예정
 - 중저가 주택포함, 향후 500~800억 달러 투입, 5년 내 1백 가구 추가 건립 예정
 - * 한화건설 80억 달러 규모의 10만가구 주택 단지 수주(2012.7월)
- (원유 가스) 연간 160억 달러 투자 예정
 - 원유가스 탐사개발 4차 라운드 입찰 실시
 - 원유증산을 위한 원유운반터미널, 원유 파이프라인 건설, 원유탱크 설치, 정제공장 건설 등 프로젝트 수요 증가
- (전력) 연간 180억 달러 투자 예정
 - 매년 180억 달러를 투자, 전력생산량을 2012년 8,700MW에서 2016년 22,500MW로 확대 예정
- (수처리) 민생형 재건사업으로 상수도 인프라 개발 추진
 - 상하수도, 폐수처리 시설 건설에 매년 30억 달러 투자
- (보안·IT) 전자정부, 통신망 구축 등에 연간 35억 달러 투자예정
 - 공항, 항만, 그린존, 출입통제,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 전자정부, 무선·광통신망 구축 전망
- (의료) 특수병원, 종합병원 건설에 연간 35억 달러 투자예정
 - 현재 병상보유 수 : 40,000병상(1천명당 1.1병상/국제평균 3.4병상)
 - 추가 병원건설 : 향후 5년간 연간 30개 종합병원 추가건립 예정(연 35억 달러)

3. 무역 · 투자 동향

□ 국제원유가격에 따른 무역규모 영향 다대

- 이라크의 수출입 실적은 국제원유가격의 변동에 큰 영향을 받음
 - 원유가 수출실적의 98%에 달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원유가격 및 원유 생산량에 따라 수출금액 등락
 - 반면 수입은 수출과 상관없이 지속 증가
- 수출상품이 원유에 국한되어 있지만, 수입은 다양한 제품으로 구성
 - 국내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서 대부분의 소비재를 수입하며 막대한 원유를 수출하는 자원부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제 시설이 부족하여 석유제품도 일부 수입하고 있음

<이라크 수출입현황>

(단위 : US백만 달러)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추정)	2012년 (전망)	2013년 (전망)
총수출	39,427	51,764	82,769	93,752	96,970
총수입	38,437	43,915	53,928	64,713	71,443
수지	990	7,849	28,842	29,039	25,526

자료원 : EIU

□ 잠재적인 투자유망국으로서 관심 고조

- 2003년 전쟁 이전에는 외국인투자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2006년 12월 투자법을 제정하는 등 투자유치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졌음
 - 막대한 원유 매장량 등을 감안할 때 투자유망국으로 부상
 -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연간 외국인투자규모는 1~5억 달러 수준에 그쳤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NIC)에서 허가해준 외국인투자건수는 총 9건에 불과
 - 주요 투자국은 미국, 요르단, 터키, UAE 등이며, 이라크 정부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민주택 건설분야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라크의 주요 외국인 투자현황>

(단위 : US백만 달러)

연도	투자국가	분야	금액
2010년	요르단	주택건설	800
2010년	이라크, 터키	주택건설	245
2009년	요르단	주택건설	230
2008년	UAE	무역	-
2008년	미국	관광	120

자료원 :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NIC)

II. 이라크의 전략적 중요성

- 원유 매장량 1,431억 배럴(세계 5위), 일일 생산량 340만 배럴(세계 8위)의 자원 부국
 - 원유생산 기반시설 확충에 따라 일일원유생산 급증 전망
 - IEA(국제 에너지 기구)는 이라크가 2020년까지 일일 원유생산량을 연 880만 배럴로 증산 전망

<이라크의 원유 매장량 및 생산량 현황(2012년)>

- ▶ 매장량 전 세계 5위, 1,431억 배럴 (전세계 매장량의 8.0%)
 - 1위 사우디 15.0%(2,670억), 2위 베네주엘라 11.8%(2,112억), 3위 캐나다 9.7%(1,736억), 4위 이란 8.5%(1,512억)
- ▶ 일일 생산량 전 세계 8위, 340만 배럴/일 (전세계 생산량의 3.5%)
 - 1위 사우디 13.0%(1,152만), 2위 미국 12.8%(1,139만), 3위 러시아 11.7%(1,045만), 4위 중국 5.0%(445만), 5위 캐나다 4.6%(412만)

자료원 :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이라크 석유부

□ 향후 5년간 2,750억 달러 규모 재건 프로젝트 발주

- 발전, 주택건설, 항만·철도 등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발주 급증 전망

◆ 진출 유망분야

- ▶ 의료재건 사업 : 이라크 병원 턴키 프로젝트 참여
- ▶ 고기술 응용 전력프로젝트 : 복합열병합발전, 신재생(풍력/태양광)
- ▶ 프리미엄대형주택단지 : 중산층을 위한 1만세대 이상의 주택 복합단지
- ▶ 생활밀착형프로젝트: 폐수처리/정수 프로젝트 등
- ▶ 오일/가스 개발 프로젝트 : 오일/가스분리, 황제거 플랜트, 파이프

- 2012년 프로젝트용 예산은 전년대비 23% 증가한 317억 달러 배정
 - 2011년 원유판매 수입의 급증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로 GDP의 11.3%에 달하는 대규모 재정흑자 발생
 - 향후 원유채굴 및 정유시설 기반확충에 따른 원유증산으로 세수 급증 전망

□ 우리기업의 진출기회가 매우 큰 잠재유망시장

- 주변국과의 갈등으로 우리기업에 진출 호기
 - 순니파인 하세미 부통령 도피와 터키의 이라크 내 쿠르드족 문제로 양국간 갈등 심화

- 최근 이라크 정부 고위인사의 親韓 발언 증대
 - 주요 발주처 담당자, 정부 프로젝트 발주시 한국업체 선호
 - 프로젝트 발주시 경쟁국보다 수주에 유리한 여건 조성
 - * 그동안 터키는 이라크 병원, 도로, 발전 등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의 50% 수주

III. 이라크 진출현황

1. 경쟁국의 이라크 진출 현황

□ 총괄 : (미국·EU) 진출분야 다변화, (중국) 진출 심화

□ 주요 국별 진출 움직임

- (미국) 원유·가스 개발, 건설 감리, 국방, IT 통신사업 진출에 역점
 - 2012년 1~7월 동안 미국기업의 약진이 두드러짐
 - 건설 엔지니어링사인 Hill Int'l사는 정부 건설시공 감리분야 프로젝트의 30% 이상 수주
 - 비 원유·가스분야(부동산, 발전, 병원, 관광, 농업)에서도 진출 강화
 - * 미국의 비에너지 분야 상업활동(외국인투자, 프로젝트 수주금액 등 포함) 2010년 7억 달러에서 2011년 28억 달러로 급격히 증가

◆ 최근 주요 진출사례

- ▶ (원유) ExxonMobil : 이라크 최대 유전 웨스트크루너 지분 60% 확보
- ▶ Chevron : 남부 나시리아유전(디카르 지방)지분 협상 중
- ▶ (감리) Hill Int'l : 이라크 청소년부 발주 4개 대형 스타디움 건설감리
- ▶ (IT) MS : Maysan주 e-government 프로젝트 수주('12.8월)
- ▶ (국방) Lock Heed Martin : 23 달러 규모 F-16 전투기, 부품수출('11)

- (EU) 발전소, 변전소, 고속도로 건설, 원유탐사, IT 분야 주력
 - 국가 간 컨소시엄을 구성, 다양한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수주

◆ 최근 주요 진출 사례

- ▶ (병원, 극장) 이탈리아 Sorima, 프랑스 Ermedi, 독일 GVOH/HT LABOR 사 컨소시엄 19개 병원, 극장건물 신축(152백만 달러,12.6월)
- ▶ (발전) 영국 AHH, 덴마크 Semco Maritime 발전소 컨소시엄 수주(5억 달러)
- ▶ (자원) 다국적 컨소시엄(네덜란드-영국의 Royal Dutch Shell사, 일본 미쯔비시사, 이라크 South Gas사)의 West Qurna 유전 지대 가스생산권리 취득(South Gas사가 지분 51% 소유)

- (터키) 중소형 주택, 병원, 발전소 건설에 역점
 - 활동이 가장 활발하지만 2010년 정치적 갈등 이후 다소 주춤
 - 2011년 누적기준 총 636건 125억 달러 프로젝트 수주(2011년 24억 달러)
 - 이라크는 터키의 5대 수출시장으로 2011년 83억 달러 수출

◆ 최근 주요 진출사례

- ▶ (병원) 터키 최대 병원건설사 Universal Acarsan사 프로젝트 5건 수행
- ▶ (발전) EKA사, 3억 달러 규모 프로젝트 수주
Kayi사, 파킨스사 맥도널 컨설팅사 컨소시엄에 참여 총 4억 달러 수주
- ▶ (철강) UB Holding사 이라크 남부 철강공장 복구 프로젝트 수주
- ▶ (주택) 바그다드 부근 Sadr City 113억 달러 규모 재건 프로젝트 수주('10년)

- (중국) 유전개발, 항만 등 토목건축 분야 진출, 제조업 투자 추진
 - 주로 국영에너지 기업(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등이 유전개발 협력사로 참여하거나 항만 등 토목건축 분야 등에 진출
 - * 이라크 진출 중국기업은 1백개사에 달하나 대부분 CNPC 유전개발 협력업체임
 - 2011년 7월 이라크 총리의 대중국 방문 이후 진출 가속화
 - 이라크 정부와 자동차 및 휴대폰 제조공장 설립 타당성 검토 중

◆ 최근 주요 진출사례

- ▶ (원유) CNPC, 이라크 남부 3개 대형유전 개발 공동참여 (프랑스, 영국, 말련 기업 공동) - 아다바, 할파야, 루마 일야 유전지대에 총 200억 달러 투자
- ▶ (발전) Shanghai Electric사, 와싯트 지방 2,500MW 열병합 발전소 개발
- ▶ (유통) Chery사, 바그다드 내 자동차 쇼룸 오픈('12.7월)

- (기타) 일본, 이란, 요르단 등은 제한적인 분야에 진출
 - 일본, 병원 설계감리, 발전소 건설에 유·무상 형태로 진출
 - * 치안 상 이유로 미국이나 유럽국가와 비교, 진출에 소극적
 - 이란, 이라크 내 시아파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정치적인 관계는 긴밀해지고 있지만 미국의 경제제재로 경제적 협력분야 한정
 - 요르단, 소규모(1,000~2,000호) 주택건설과 병원 컨설팅 분야 진출

□ 주요 분야별 외국기업 진출 동향

- (원유·가스) 글로벌 자원개발기업 진출
 - 이라크 정부의 원유생산 증강 정책에 따라 외국인투자 집중
 - 글로벌 원유·가스 개발사 미국 ExxonMobil, 영국-네덜란드 Royal Dutch Shell, 영국 BP, 중국 CNPC, 미국 Baker Hughes, 러시아 OJSC사 등 진출
- (발전) EU, 터키, 중국 등 발전업체 진출
 - 독일 지멘스, 프랑스 알스톰, 스위스 ABB, 터키 EKA, Kayi, 중국 CMEC, Shanghai Electric, 한국 STX 중공업, 현대건설 등 진출
- (건설) 한국, 일본은 원유·가스 플랜트, 터키는 중소형 주택단지 주력
 - 한국과 일본은 엔지니어링 기술이 요구되는 원유·가스 플랜트, 발전소 건설시장 주도
 - UAE와 터키는 중소형 주택단지 개발(1천-1만세대) 주도
- (물류) 2012년 외국 항공사의 이라크 취항에 따른 투자 지속
 - 에미레이트 항공사, 두바이-바그다드/두바이-아르빌 2개 노선 취항
 - 카타르 항공사, 도하-바그다드 취항, 바레인 걸프항공의 바레인-바그다드 취항

<주요 외국인 상업활동 현황('12.1월 ~ 7월)>

분야		국가		투자지방	
분야명	건수	국가명	건수	지방명	건수
오일가스	27	미국	31	바스라	39
운송	23	터키	20	바그다드	27
주택	19	UAE	18	쿠르드자치	23
건설	17	UK	10	와싯트	10
제조업	12	이란	9	타밈	7
방산	8	일본	9	디카르	6
공공사업	8	한국	9	안바르	5
기타	29	기타	37	기타	26
합계			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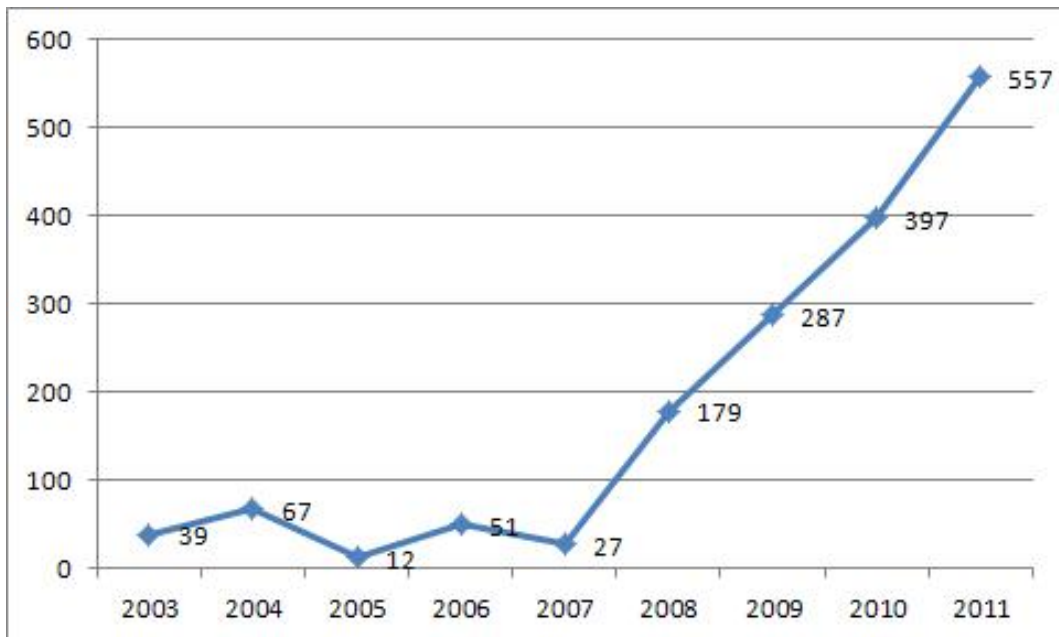
자료원 : 바그다드 무역관

□ 연도별 외국기업 진출현황

- 테러가 감소하기 시작한 2008년부터 외국기업 진출 급증
 - 외국인 상업활동* 규모는 치안이 안정되기 시작한 2008년 179억 달러를 기록, 전년대비 563% 증가한 후 상승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 * 외국인 상업활동(Foreign Commercial Activity)
 - 외국인 투자, 이라크 내 발주 프로젝트 수주금액 및 기타 영업활동 포함

<연도별 외국인 상업활동 현황('03년~'11년)>

(단위 : US억 달러)



자료원 : Dunia Frontier Consultant

□ 이라크 방문 외국사절단 및 국제세미나, 포럼 개최 현황

- 소규모 경제사절단 파견 위주
 - 그동안 이라크-특정국가간의 세미나와 포럼은 거의 전무하였으나 최근 독일, 영국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미국이나 유럽 등 경쟁국들의 경우, 대부분 중소형 경제사절단 파견
 -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장관급을 면담하거나 간담회 형식으로 방문
 - * 대부분 10-15명의 기업인으로 구성/간담회시 상호 관심사항 발표

- 독일-이라크 최대규모 경제투자 포럼 개최
 - 일 자 : '13.25(화)
 - 장 소 : 이라크 바그다드 알 라시드 호텔
 - 주요내용 : 이라크 교통, 주택건설, 상하수도 관련 프로젝트 발표
 - 참석자 : 총 350명
 - 이라크 : 부총리 등 250명
 - 독 일 : 교통부 장관, 국회의원, 상공회의소 의장 등 100명 참가

<주요국의 경제사절단 파견 현황>

시기	사절단명	비고
2013.3월	싱가폴 경제사절단	컨퍼런스 개최예정
2013.3월	중국 경제사절단	컨퍼런스 개최예정
2013.3월	영국 경제사절단	비즈니스 포럼 개최 예정
2011.4월	스웨덴 무역부장관 경제사절단	총리·무역부장관 면담
2011.4월	인도네시아 국회 경제사절단	경제협력 논의, 이라크 국회의장·총리 면담
2011.5월	미국 방산사절단	이라크 국방장관·차관 면담
2012.5월	튀니지 상공회의소 경제사절단	NIC, 무역부 차관면담
2011.5월	오스트리아 외교장관 경제사절단	총리·장관 면담

자료원 : 바그다드 무역관

2. 우리나라의 이라크 진출현황

□ 정부차원의 교류, ODA 지원

- 한-이라크 공동위 개최 및 정부 고위인사 상호 방문
 - '12년 7차 한-이라크 공동위 서울에서 개최
 - 2010년 한국경제사절단(단장 : 지경부 장관, 50개사 참가) 이라크 방문
 - 말리키 이라크 총리 방한(2011년 4월)
 - ☞ 한국과 이라크 상호 간 경제협력 강화 분위기 조성
- (ODA 현황) 누적금액 총 2억 9,400만 달러(전액 무상) 지원
 - 2011년 무상원조 1,000만 달러 지원
 - * 상수도 침사지 설치사업, 초등학교 시설 개선사업 등

□ (무역) 2012년 대이라크 수출 전년대비 76.5% 증가

- 대이라크 주요 수출품은 승용차, 무선전화기, 기계류
 - 발전기자재, 철구조물, 산업기계 등 재건 프로젝트 관련 품목 수출 급증
- 수입은 대부분 원유가 차지하며, 농축산물, 섬유제품은 소량 수입

<대이라크 교역동향>

(단위 : US백만 달러,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수출	785	113	1,201	53.1	1,535	27.9	1,866	21.6
수입	3,812	-9.8	4,428	16.2	9,138	106.4	10,223	11.9
규모	4,597	0.0	5,629	22.4	10,673	89.6	12,089	13.3

자료원 : KOTIS

□ (투자) 2006년 이후 건설, 광업 분야 진출 증가

- (연도별) 그동안 치안불안으로 우리기업의 투자가 전무하였으나 2006년부터 상대적으로 안정된 쿠르드 지역에 진출하기 시작하여 2012년 누적기준으로 62건, 451백만 달러 기록

<연도별 한국의 대 이라크 투자현황>

(단위 : 건, US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총계	62	9	4,923,865	156	451,203
2007	4	2	1,250	5	253
2008	5	1	4,565,000	1	22,798
2009	10	1	32,068	37	62,183
2010	17	1	322,343	51	90,206
2011	12	1	859	41	121,078
2012	7	0	1,275	18	153,615

자료원 : 수출입은행('12.9기준)

- (분야별) 2012년 6월 누적 기준, 대이라크 투자 신고금액은 49억 달러를 기록
 - 총 금액 49억 중, 광업이 48억으로 99%, 이외 운수, 건설업 순임
 - 총 신고 62건 중, 운수업 58%, 건설업 18%, 광업 10% 차지
 - * 인천공항공사의 아르빌 국제공항 운영에 따라 운수업 투자신고 건수가 높음
 - (건설·플랜트) 한화, 현대, GS, 대우 건설 등 총 12개 건설업체가 바그다드와 바스라에 진출
 - * 2012년 6월, 한화건설이 80억 달러 대규모 비스마야 주택건설 사업 수주
 - (원유·가스) 석유공사, 쿠르드 자치정부로부터 채굴권 확보 / 가스공사, 중앙정부로부터 가스탐사권과 원유개발 지분권 취득
 - * 한국석유공사, 쿠르드 원유탐사 PSC 체결후 중앙정부 입찰자격 박탈

□ 진출기업 현황 및 주요 추진 프로젝트

○ 이라크(쿠르드 제외) : 24개사(2013. 2월 기준)

시기	기업명	지역	인원	프로젝트 명
2012.6	한화건설	비스마야	100	80억달러 비스마야 주택단지 수주
2012.2	STX 건설	바그다드	2	10억달러 디젤발전설비 시공
2011.7	블렛케이	바그다드	3	한국업체 대상 경호 및 숙박
2011.1	STX 중공업	바그다드	3	10억달러/900메가 디젤발전소 수주
2012.5	STX마린스	바그다드	2	유조선 선박수주 업무
2012.1	대우건설	바스라	1	항만, 석유플랜트 수주업무
2013.1	월드컨설팅	바그다드	1	경호/비즈니스 컨설팅 업무
2010.12	한국가스공사	바그다드	3	아카스 가스전, 바드라 유전 수주
2011.2	현대엔지니어링	바그다드	5	500MW 가스터빈 발전소(2.2억달러) 1,752MW 가스터빈 발전(4억달러)
2012.5	삼성엔지니어링	바그다드	10	웨스트 크루나 유전 Degassing (10억달러/발주처 : 루크오일) 바드라 유전 플랜트 수주 (9억달러/발주처 : 가스프롬)
2012.2	LS산전	미설치	0	1억달러 변전소 수주(총 10여개)
2012.5	건설관리공사	바그다드	1	대사관 신축공사 감리 수주
2012.5	한국석유공사	바그다드	1	중앙정부 발주 자원개발 수주업무
2012.4	현대건설	바그다드	1	프로젝트 미수주.
2012.5	GS건설	바그다드	1	프로젝트 미수주.
2011.12	삼희종합건설	바그다드	2	대사관신축 시공수주
2012.5	유명	바스라	2	삼성엔지니어링 협력사
2012.5	홍해기술	바스라	2	“
2012.5	삼흥전력	바스라	2	“
2012.5	동일산업	바스라	1	“
2012.5	S-TANK	바스라	1	“
2012.5	ALLNATIONS	바스라	1	“
2003	코이카	바그다드	2	무상원조 사업
1992	코트라	바그다드	1	무역투자 지원
합계	24개 회사			

자료원 : 바그다드 무역관

○ 쿠르드 진출기업 : 12개사(2013.2월 기준)

기업명	지역	인원	프로젝트 명
코이카	아르빌	1	이라크 무상협력사업
한국석유공사	아르빌	1	쿠르드 바지안 광구 유전개발
인천국제공항	아르빌	1	아르빌 국제공항 운영사업 수주
한국가스공사	아르빌	1	키르쿠크-베이지 배관공사 수주
LG전자	아르빌	1	전자제품 판매
알코	아르빌	1	현지법인. 건설업
IKC건설	아르빌	1	코리안 빌리지 건설사업 관리
현대엔지니어링	술레마니	1	Kirkuk Taza/Rumaila 가스터빈발전공사
쌍용건설	할랍자	1	상수도 개선 프로젝트(2.5억달러,JICA 발주)
포스코건설	아르빌	1	카밧 발전소/바지안 변전소 공사 수주
에이치무역	아르빌	0	아르빌 소란대학교 e-campas 사업추진
워드필	아르빌	1	아르빌 소란대학교 e-campas 사업추진

자료원 : 바그다드 무역관

IV. 우리기업의 이라크 진출전략

1. 진출 유망 분야

가. 주택/교통인프라(건설)

1) 주택

□ 개요

- 향후 10년간 연평균 2% 이상의 인구증가로 주택수요 급증전망 (매년 60만 명 이상 증가)
- 주택건설부와 NIC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350만호 주택 추가 건설 필요
 - 이라크 정부는 2017년 까지 250만호, 2015년 까지 100만호 건설 추진
- 3만 가구 이상의 대단지 주택건설, 바그다드와 바스라에 집중, 지방도시는 1천~2만 가구 중소형 규모로 추진
 - 이라크 정부, 향후 2-3년간 주택사업에 300억달러 예산 투입
 - 현재 추진 주체가 국가투자위원회(NIC), 주택건설부, 지방정부, 민간투자 등으로 분산되어 국가 전체 사업규모는 파악 불가
-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라크 전체(쿠르드 제외)적으로 5천 가구 이상(200억 달러) 규모의 80여개 프로젝트 추진 예상
 - 바그다드 : 비스마야 10만호(한화), 바스라 나킬시티 프로젝트(계획)
- 쿠르드 지방의 주택건설은 두바이를 모델로 민간투자 중심 추진, 현재 약 60억 달러 규모의 78개 프로젝트가 진행 중

□ 주택건설 추진 기관

- 국가투자위원회(NIC) : 2만 가구 이상 대단지 주택 개발(민관투자 복합)
 - 민간 : 주택토지 개발, 소유, 분양
 - 정부 : 인프라 투자
- * 한화 비스마야는 분양책임이 정부에 귀속

- 주택건설부 : 2만가구 이하 정부주도의 주택사업 실시(주택펀드)
- 지방정부 : 외국인 투자와 정부주도 사업 병행
 - 신 투자법에 따르면, 주택사업 시행자에 한해 토지 지분허용
 - 토지개발 및 분양책임과 분양수익은 투자기업, NIC는 주택단지 관련 인프라 예산배정

□ 유망 프로젝트

◆ 바스라, 바그다드 - NIC, 지방정부간 사업추진이 협의되고 있으며 이라크에서 가장 유망

◆ 아르빌 - 민간투자 유망

- 바스라 나킬 시티 프로젝트
 - 위 치 : 바스라 남쪽 35km, 이라크 최대 항구인 움카스르 인근
 - 규 모 : 약 145km²/향후 25년간 1백만명 인구 수용 계획
 - 발 주 처 : 바스라 주정부/NIC 공동
 - 내 용 : 주택단지, 산업단지, 자유무역지대, 각종 사회 인프라 시설 병행
 - 진행단계 : 바스라 주정부, 도시 계획 설계 용역발주(Dewan Architech/2013.1) * 예산/절차 등 세부사항은 미정
- 바스라 6만호 주택단지
 - 위 치 : 바스라 인근
 - 규 모 : 미정
 - 발주처 : NIC
 - 내 용 : 6만호부터 시작하여 10만호까지 확대
 - 진행단계
 - 2011년 Trac과 Hill Int'l이 추진했던 건으로 현재 NIC와 다시 협상 진행 중
 - 한국의 대형 건설사 컨소시엄으로 협상 진행 중이나 투자관심 기업 참여 가능

- 뉴 바스라 오일, 가스 국제 자유무역지대 내 주거단지
 - 위 치 : 바스라 남쪽 35km, 이라크 최대 유전지대의 70% 면적
 - 개발회사 : 바스라 국제오일가스사(BIOGH), 이라크 자유지역관리청(IFZA)
 - 내 용 : 1,100만 S/M 개발, 오일가스 전용산업단지, 물류창고, 원유저장소 산업주거 단지, 교통시설 개발
 - 진행단계 : 발주처, 단지 개발 마케팅사 선정(EPGI, 2013.1월), 현재 개발계획 중으로 상세내용 미확정

- 아르빌 민간주택 단지
 - 크리스찬, 이탈리아, 영국, 미국 빌리지 완공, 레바논 빌리지 공사 중
 - 아르빌의 전 도시가 현재 건설 공사 중으로 민간 투자 급증

2) 교통인프라

□ 개요

- 향후 이라크 최대 재건투자 분야로 약 460억 달러 소요
 - 이라크 원유재정 수입, 2013년 1,200억 달러 추정 (이중 인프라 투자 : 약 450억달러)
 - 그동안 재정난으로 투자 우선 순위에서 제외되었으나 향후 5년간 최대 투자 유망 분야로 부상, 전체 규모의 50% 이상은 민자로 건설 예정
 - 바그다드 시내 심각한 교통 혼잡, 철도 노후화(시속 60km 이하), 원유증산에 따른 대형 항만 건설 등 인프라 건설 수요 급증

<분야별 주요 프로젝트>

분야	세부내용	예산
항만	최대 역점사업 - 알파오 프로젝트(60억 달러)	100억 달러
철도	바그다드-바스라-모술-안바르 기존노선 교체사업 (시속 60km → 시속 120km / 철도차량, 토목 등)	120억 달러
	추가 노선 투자	100억 달러
메트로/모노레일	바그다드 메트로, 공항-바그다드, 나자프 모노레일등	50억 달러
공항	바그다드 국제공항 확장, 나자프 지역 신규공항, 안바르 공항개발	10억 달러
도로/고속도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도로건설추진	80억 달러
합계		460억 달러

자료원 : 이라크 교통부, 바그다드 무역관

□ 유망 프로젝트

- (항만) Al Fao 항만 사업 : 총 60억 달러 규모
 - 발 주 처 : The state company for Iraq Port(교통부 산하 항만청)
 - 내 용 : 7km 컨테이너선 전용 접안부두 건설, 3.5km 일반 화물선 접안부 11개 부두건설, 8개 컨테이너 크레인용 10개 플랫폼 건설, 대규모 컨테이너 및 일반화물 야적장 및 부대시설 등
 - 진행단계 : 1단계 방파제 공사 발주 완료(2억 달러, 2012.10월, 그리스 아키돈사)
 - 추후발주 : 2013년 추가 방파제 공사 발주예정, 향후 6년간 발주 예정
- (철도) 기존 4개 철도노선 교체 : 약 120억달러
(바그다드-바스라-모술-키르쿱)
 - 발주처 : Iraq Railway Company(IRC/교통부산하 철도공사)
 - 공사내용 : 총 연장 1,600km 노선 교체(기존 시속 60km-120km) 및 복선화, 철도 레일 구매 설치, 차량구매 등
 - 진행단계 : 2,000km 장거리 철도교체 경험을 갖고 있는 독일의 티센 그룹과 중국의 제철회사 입찰 참가
 - * 이라크 철도 레일 신규 규격기술 보유사인 독일의 티센그룹은 입찰에 적극 참여중이나 현대제철은 가격 문제로 미응찰
 - 향후 전망 : 철도 레일 및 차량구매 입찰 실시 예정
- (철도) 6개 주요 도시 연결 신규 노선 : 약 100억 달러
 - 발주처 : Iraq Railway Company
 - 내 용 : 바스라-아미라-쿠르트-바빌-바그다드-안브르(1,020km-일반철로)
 - 진행단계 : 2012년 터키사가 설계, 터키-이라크 합작사가 시공키로 발표하였으나 구체적인 진행은 중단된 상태. 재정 미 확보로 민자투자과 병행 전망되나 향후 원유재정 수입 확대에 따라 변동가능
- (철도-메트로) 바그다드 메트로 건설(40km) : 약 30억 달러
 - 발주처 : 미정이나 현재 바그다드 주정부에서 진행 중
 - 내 용 : 혼잡한 바그다드 시내 교통분산을 위한 메트로 건설
 - 진행단계 : 2012년 프랑스 알스톰사가 타당성 검토 완료, 예산확보 중

- (철도) 바스라-알파오 화물철도(101km-12억 달러)
 - 진행단계 : 중동 최대의 신항만 알파오 연결 화물철도로 향후 2-3년 내 착공 추진 중
- (철도-메트로) 민간투자 유망 프로젝트
 - 바그다드-아카바 철도 신규노선(700km)
 - 진행단계 : 아카바는 이라크와 요르단 화물물량의 70%를 점유, 양국간 철도 노선 건설합의, 현재 검토 단계
 - 바그다드-국제공항간 모노레일(20km) : 검토 단계
 - 모술-터키 국경간 철도(167km) : 검토 단계
 - 바그다드 순환철도(112km) : 검토 단계
 - 바그다드 고가철도(25km) : 검토 단계
 - 바그다드-바스라 고속철도(450km, 100억달러) : 검토 단계
- (공항) 바그다드 공항 현대화 및 나자프 신규 공항 등
 - 공항은 아직 치안문제로 확장보다는 단기적으로 현대화 및 위탁 운영에 초점
 - 쿠르드 아르빌은 인천공항공사가 위탁 운영 중(약 8천만 달러 수주)
 - 이라크 교통부 장관, 바그다드 공항 현대화 및 위탁운영 적극 검토
- (고속도로/도로)
 - 부가가치가 높은 이라크 북부-터키 연결 고속도로나 터널공사 유망
 - 이라크 전역에 7천km 규모 도로개선 사업(총 80억 달러)이 진행될 예정이나 일반도로의 경우, 우리기업은 가격 경쟁력이 취약
 - 바그다드-터키 국경간 고속도로 : 덴마크 Cowi사 설계 수주('12.8월)
 - 최대 규모의 고속도로 사업으로 외국기업의 최대 관심 프로젝트
- 한국기업의 주요 관심분야
 - 모술-터키간 국경철도 공사(터널이 많은 어려운 공사로 한국 경쟁력 보유)
 - 바그다드-바스라 고속철도 공사
 - 기존 철도 노선 레일 및 차량공급, 항만/공항 공사

나. 원유/가스/석유화학(에너지 인프라)

□ 개요

- 석유 생산현황
 - 기존 유전 : Rumaila, Bai Hassan, Jubair, Kirkuk(4개유전)
 - 이라크 석유생산량 : 340만 b/d(2012.12월)
 - 향후 증산 계획 : 650만 b/d(2016년)/880만(2018년)
- 석유수입 재정 규모 : 1,100억달러(2012년) - 배럴당 95달러 기준
 - 2013년 1,250억 달러, 2016년 2,000억 달러, 2018년 2,800억 달러(예상)
- 신규 유전/가스 탐사 입찰 현황
 - 삼성 엔지니어링 원유가스 분리 프로젝트, 러시아 루크오일이 발주
 - 바드르 에너지 인프라 사업, 러시아 가즈프롬이 발주
 - * 외국 석유 메이저 기업이 에너지 인프라의 주요 발주처임

<신규 유전 입찰 및 수주 현황(4회 실시)>

년도	회차	건수	주요 유전(석유 메이저)	위치
2009	1차	4개	- 루마일라(BP/CPNC) - 웨스트 크루나1(엑손모빌/Shell) - 줘바이르(ENI/Oxy/Kogas) - 미산	-마스라 주변 -마스라 주변 -마스라 주변 -동부지역
2009	2차	8개	- 마즈눈(Shell/Petronas) - 웨스트크루나2 (Lukeoil/Statoil) - 할파야(CNPC/Total/Petronas) - 바드라(Gazprom/Tpao,Kogas,Petronas) - Garraf(Petronas/Japex) - Qaiyarah(Sonangol) - Najmah(Sonangol) - Al Ahdab(CNPC)	-마스라 북쪽 -마스라 주변 -마즈눈 북쪽 -동부지역
2010	3차	4개	- Akkas(Kogas) - Mansuriah(Kuwait Energy/TPAO) - Mansuriah(Kogas) - Siba(TPAO/Kuwait Energy)	- 가스전
2012	4차	4개	- Oil Block9(Kuwait Energy/Dragon Oil) - Oil Block10(Lukeoil/Ipex) - Oil Block12(Bashneft) - Gas Block8(Pakistan Petroleum)	- 서쪽 사막지대

자료원 : 이라크 석유부, 바그다드 무역관

- 기존 석유 송유관 라인 현황(4개)
 - 북부 키르쿠크-남부유전- 바스라항 라인
 - 북부 키르쿠크-터키 세이한항
 - 북부 키르쿠크-시리아 바니아스 라인(폐쇄)
 - 이라크-사우디 라인(폐쇄)

- 쿠르드 지방 석유생산 현황
 - 매장량 총 400 억배럴, 총 유전개발 계약건수 47건
 - 엑손모빌 6개, 가즈프롬 2개, 토탈 3개, 셰브론 2개 등
- 이라크 정유시설
 - 정유용량 : 70만 b/d(3대 정유공장: Baiji, Basra, Daurah)
 - 국내 휘발유 수요의 30%, LPG의 17% 수입에 의존

□ 유망 프로젝트

- 원유가스 파이프 라인 개보수 및 신규건설
 - 이라크-요르단 오일 수출 파이프 라인(발주처 : 석유부, 계획단계), 3개 패키지로 구성(바스라-하디타-아카바 연결)
 - 이라크-시리아 가스 파이프 라인 건설(발주처 : 석유부, 계획단계)
 - 이라크 신규 유전- 바스라 원유터미널 파이프 라인 신규 건설(신규 계획), 4회 탐사 입찰 통해 신규 가스/유전 지대 : 총 12개
 - 기존 오일가스 파이프 라인 개보수(발주처 : 석유부, 계획단계), 키르쿠크-바스라 유전가스 라인
- 원유 수송용 전용 터미널 건설(바스라 남쪽향)
 - 바스라항 원유수송 전용 터미널 2단계 공사 진행 중(이탈리아 Saipen사 수주)
 - 향후 급증하는 원유 증산 대비 추가 전용 터미널 건설 필요 : 시기는 미정
- 원유 저장탱크 프로젝트
 - 이라크 원유 증산으로 장단기 원유 저장탱크 건설에 대한 수요 증가
 - 현재 석유부는 재정투자 및 민간 투자 병행 계획
 - * 한국의 S사도 바스라 지역 내 원유 저장탱크 사업 추진 중
- 석유화학 플랜트 및 석유 정제공장 프로젝트
 - 플랜트 : 유전 내 황산제거 플랜트, 원유/가스 분리 플랜트, 암모니아/인산공장
 - *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발표되지 않았으며, 이라크 정부에 사업계획 제안 가능
 - 예산 미확보로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

<정제 공장 프로젝트 현황>

프로젝트명	정제규모(b/d)	위치
나시리아 정제공장	30만	나시리아
키르쿠크 정제공장 -Atmospheric, Distillation Unit -Fluid Catalytic Cracker -Naphtha, Hydrotreating unit	15만	키르쿠크
미산 정제공장	15만	미산

자료원 : 이라크 석유부, 바그다드 무역관

다. 전력/상하수도/폐수처리 분야

1) 전력사업

□ 전력재건 사업 Master Plan(2012-2017년)

○ 전력공급 현황

- 공급 전력량 : 총 8,800MW (2012년 말 기준)
- 전력공급 시간 : 일일 평균 6-7시간, 나머지는 민간 발전기에 의존
- 주요 발전방식 : 디젤, 가스, 열 발전소. 주로 one cycle 방식

<발전소 추가 건설 계획>

발전소 종류	용량(MW)	추진년도
가스터빈 발전소	13,000(14개)	2012~2015
열발전소	7,000(5개)	2012-2017
디젤발전소	1,130(5개)	2012(완료)
신재생((Solar&Wind)	400	2013~2016
복합발전소(Combined cycle)	400	2013~2017
합계	25,530	2012~2017

자료원 : 이라크 전력부, 바그다드 무역관

<전력 재건사업 재정 투자 계획>

(단위 : US십억 달러)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4.5	9	13.5	18	22.5	27

자료원 : 이라크 전력부, 바그다드 무역관

주 : 기존 메가딜&EPC 프로젝트 기 배정 예산 제외
(발전 : 140억, 변전 : 50억, 송전 : 80억 달러)

- 복합사이클 변경 프로그램(단일 → 복합사이클)
 - 용량 : 1,925MW(2013-14)/ 2,250MW(2015-2017)
 - 1단계에 기존 모든 발전소와 신규 가스발전소(천연가스 연료)는 모두 단일에서 복합 발전소 모델로 변경 추진
 - 2단계에는 원유와 중유로 가동되는 모든 신규발전소는 천연가스 원료 공급시 모두 복합발전소로 변경

□ 유망 프로젝트

- 향후 전력 사업 추진 방향
 - 디젤 발전소 건립 중단(2012년 말로 디젤 발전소 건립 중단)
 - 가스터빈 발전소 집중 건설, 당분간은 가스자원 부족으로 가스대신 중저질 원유를 원료로 사용, 발전 플랜트 가스·원유 복합 사용가능 개조 필요(사양 수정)
 - 기존 One cycle에서 Combined cycle로 모델 변경 가속화
 - 신재생 에너지 발전 추가 건설

<유망 프로젝트 현황>

발전소명	용량(MW)	2013년	2014년	2015년	위치
Al Sader	169x2	338			Baghdad
Al Quds	125x4	500			Baghdad
Al Najibia	125x4		500		Basra
Shat Al Basra	125x10		1250		Basra
Al Rumaila	292x5	584	876		Basra
Al Khairat	125x10	1250			Kerbala
Dibs (Russian)	169x2		338		Kirkuk
Dibs	169x2		338		Kirkuk
Kirkuk (Taza)	265x1	265			Kirkuk
Ninawa	125x6	750			Ninawa
Al Haydaria	125x4	250	250		Najaf
Akaz	125x2	250			Anbar
Akaz	120x1			120	Anbar
Al Samawa	125x4		500		Muthana
Al Diwania	125x4		500		Diwaniya
Al Amara	125x4		500		Missan
Bazrkan	60x2	120			Missan
Al Nasiriya	125x4		500		Thiqr
Beji	169x6		1014		Salah AlDeen
Al Mansoria	185x4	370	370		Diyala
Al Najaf	55x1	55			Najaf
합계		4,732	6,936	120	11,788

자료원 : 이라크 전력부, 바그다드 무역관

- 신재생 프로젝트
 - 이라크 전력부내 신재생에너지/환경센터 설립(전력부내)
 - 신재생 전력 프로그램, 발전국/송전국에서 승인
 - 이라크 태양광 전력 잠재력: 5.7Kwh/day, 2,050kwh/year
 - 신재생 발전 이용 계획
 - 1단계 국가전력계통망 미연결, 고립화된 원격지역 전량 공급
 - 2단계 : 국가전력계통망에 연결
 - 프로젝트 내용
 - 1단계 : 2억 달러 투자, 43메가 태양광 사업 입찰(입찰 진행), 2013년 완료, 2016년 까지 전체 전력의 2% 점유
 - 2단계 : 총 22억 달러 배정, 450메가 규모의 태양광 및 풍력발전 건설

2) 상하수도/폐수처리

□ 추진현황

- 상하수도
 - 이라크 생활 재건 사업의 주요 분야로 2012년까지는 원유가스 및 전력 재건 사업에 밀려 프로젝트 발주
 - 주로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에 의해 소규모로 추진(건당 2천만-1억 달러 미만)
 - 지하수 펌프 플랜트 사업 위주로 바그다드, 안바르, 바스라 주정부 중심으로 추진(2012년 전체 투자규모는 10억달러 미만)
 - 이라크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수량 풍부로 지하수 펌프 사업 보다는 강물을 활용한 식수 및 농업/산업용수 공급이 유망
- 폐수처리
 - 폐수처리 사업은 주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지방공공사업부가 발주
 - 아직까지 1억달러 이상의 대규모 발주는 전무. 주로 지방정부 단위로 폐수처리 및 가공설비 구축 단계. 연간 전체 발주 규모는 15억달러 이하, 지방공공사업부, 2012년 총 5개 폐수처리 사업 발주

□ 향후 유망 분야

○ 전망

- 최근 겨울 강우량이 급증, 바그다드 시내 전체가 배수가 안돼 교통마비 및 학교 휴교 사태 발생
- 강수량 대비 배수관개망 구축과 티크리스, 유프라테스 강물오염 방지 대형 수자원 정수 시스템 도입 절실, 아울러 북부 모술댐 등 기존 댐 복구사업도 유망
- 수자원/폐수처리 분야, 향후 생활재건 분야의 핵심 사업으로 부상 예정이나 현재까지 중소형 규모 프로젝트 이외 대규모 사업 발표는 없음
-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바그다드와 바스라 중심으로 폐수처리 프로젝트, 강물정수 프로젝트 추진 예정 (2013년 약 30억달러 투입 예정)

○ 유망 분야

- 바스라 폐수처리 사업(발주처 : Al Dhow for Environmental Projects, 계획단계)
- 바그다드 폐수환경 프로젝트(발주처 : 바그다드주정부, 타당서 조사완료)
- 북부 모술댐 등 댐 복구 공사(발주처 : 수자원부, 계획단계), 수자원부의 관심사항 중 하나로 최근 독일 포럼시 경제부총리와 관련 공무원 대상, 독일 기업이 복구 방안제시 프리젠테이션 실시
- 배수 및 관개 프로젝트(발주처 : 수자원부, 계획 준비 단계)
- 수자원 공급 프로젝트(발주처 : 수자원부, 지방정부, 계속사업)

다. 보안/IT

□ (보안) 개요

○ 치안불안으로 보안시장 규모가 꾸준히 증가

- 이라크 정부의 통계 미발표로 정확한 보안시장 규모는 파악이 불가능하나 연간 약 30억 달러로 추정

○ 주요 보안시장 분야

- 국방부 통신망 구축 수요
- 공중 경계망 감시 시스템
- 공항, 그린존, 항만, 주요 기관시설 출입통제, 모니터링 및 보안 시스템

□ (IT) 개요

- 이라크의 IT 시장은 초기 개발단계이며, 국내 유선 통신망보다는 무선 통신망이 보편화(유선통신망 가입자수 1백만 명에 불과)
 - 이라크 정부와 민간기업, 가정 대부분 유선전화 미사용. 대신 이동전화 이용자 수가 약 2,500만 명에 육박
 - 현재 2G EDGE/GPRS 기술 사용 중이나 통신망 부족으로 품질이 매우 열악, 인터넷 광통신망도 다운로드 기준 50K 수준(중동 최저 수준) 이동통신 이용자수는 매년 15% 이상 급증
 - 통신미디어 위원회는 최근 3G 통신망 사업자 라이선스™ 발급 중, 이라크 3대 이동통신 사업자 자인, 큐텔, 아시아셀 등과 프랑스 텔레콤, 코렉/아질리티 사업자도 투자 예정
- 이라크의 이동통신망과 인터넷망은 주로 민간기업이 운영, 국가 차원의 대규모 투자는 거의 없음
 - 이라크의 IT 분야 중 이동통신망과 인터넷망 확대 구축사업과 국방부와 내무부의 통합감시 시스템, 전자정부, 이동통신기술 구축사업 등이 유망
- 국방부와 내무부 등을 제외한 통신부의 순수한 IT 사업 예산은 연간 5억 달러 미만인 것으로 추정(대부분 IT는 민간투자-운영자 중심)

□ 유망 프로젝트

- (보안/IT) 바그다드 통합감시 시스템
 - 발주처 : 내무부 IT통신국(통합감시 시스템 입찰위원회)
 - 규 모 : 미정이나 1단계 5-6억달러(전체 약 30억달러)
 - 추진배경 : 이라크 정부는 바그다드 그린존과 시내 주변을 치안 감시 무인벽을 설치 주야간 실시간 무인감시, 탐지기능 설치 (2km 이상 장거리 감시)
 - 프로젝트 개요
 - . 바그다드 시내 124km에 방벽 및 관리용도 시스템 구축, 감시탑 54개소, 체크 포인트 17개소 설치
 - . 시내주요 지점 및 티그리스 강변 감시시스템 설치, 수도내 주요 사령부 25개소 설치 등
 - 진행상태 : 중국, 터키 등 IT기업 바그다드 현장 답사 후 내무부에 사업제안 등 입찰 준비 단계

- (IT) 이라크 내무부 전용 LTE 무선 통신망 구축
 - 발주처 : 이라크 내무부
 - 내 용 : 이라크 60만 경찰 내부 사용목적으로 최신 기술인 LTE 망 도입 추진
 - 진행단계 : 각국 IT 기업에게 제안서 제출 요청 중

- (IT) 전자정부 구축
 - 발주처 : 내무부
 - 내 용 : 내무부는 각종 민원사항 전산화 계획. 지방공공사업부도 전자정부에 관심

- (IT) 광통신망 구축 및 장비, 교환기 업그레이드, 광대역유선접속망 등
 - 발 주 처 : 통신부/통신사업자
 - 진행단계 : 향후 3세대 이전과 함께 통신망 구축 및 관련 장비수요 증가 예상

라. 의료 분야

□ 개요

- 그동안, 의료 산업 투자 극히 미미
 - 사담후세인 정권 출범 전(1980년 이전) 의료수준은 매우 높았으나 그동안 의료분야에 대한 투자에 소극적
 - 보건부 이외 민간이나 타부처와 지방정부도 의료산업 투자에 소홀
 - . 민간병원 병상수 : 약 2천개에 불과(2011년 말 기준)

- 의료 산업 현황
 - 전체 병원 수 : 210개 종합병원/1,854개 보건센터 운영
 - 전체 병상수 : 36,850개(인구 천명당 1.13병상)-국제평균 : 약 3.3병상
 - 최근 신축병원 : 25년전 일본기업이 건설한 산부인과 전문병원이 마지막 병원

- 보건부 보건재건 사업 시동
 - 낙후된 의료시설 확충 위해 병원신축 및 개보수에 예산 적극 투입
 - 2012년 보건부 재정 10억달러, 지방 및 타부처 포함 총 20억달러 규모
 - 2013년 보건부 재정 15억달러, 지방 및 타부처 포함 총 35억달러 예상
 - 2013-2017년 5개년간 총 649개의 중소형 병원 프로젝트 추진 계획

□ 유망 프로젝트

- 메디컬 시티 4대 특수병원 프로젝트
 - 발주처 : 보건부
 - 규 모 : 약 4.2억달러
 - 내 용 : 심장병원(300병상), 신장이식센터(300병상), 골절이식센터(300병상), 질병센터 등 4개 특수병원 신축 턴키 공사 (설계+시공+장비+훈련)
 - 추진단계 : 2012년 말 사전심사 실시 후 부지확보 문제로 2013년으로 연기, 2013년 상반기 중으로 실시, 한국 3개사 사전심사 통과, 신규 기업 참여 가능
- ACA 프로젝트
 - 발주처 : 보건부
 - 규모 : 약 3.6억달러
 - 주요내용 : 바그다드(400), 디와니아(400), 디알라(400) 등 총 1,200병상 규모의 주립 종합병원 건설 사업
 - 진행 단계
 - . 2010년 오스트리아 ACA사가 4.6억 달러에 수주하였으나 제반 문제로 포기
 - . 2012년 12월 중 디와니아 병원만 입찰을 재실시 하였으나 참가자격 미비로 2013년으로 연기
 - . 2013년 중 3개 병원 모두 입찰 재실시 예정

<중소형 병원 프로젝트(2013년 예상)>

프로젝트명	병상	금액(백만 달러)
바그다드 리사파 병원	200	80
알무타나 병원	200	100
안바르 라미디 병원	100	50
안바르 루트바 병원	100	50
디알라 무트다미아 병원	200	100
디알라 발라르주르 병원	200	100

자료원 : 이라크 보건부, 바그다드 무역관

- 병원 기자재 납품 프로젝트
 - 2013년 2월 현재 8천만달러 규모 병원기자재 입찰 진행중이며 향후 추가로 기자재 납품 입찰 가능성 다대

- 바그다드 피부미용 전문 병원/스킨케어 센터(민간투자)
 - 이라크내 피부미용 및 스킨케어 전문 센터 전무하나 시장성 다대
 - 한국산 피부미용과 스킨케어 시술 장비와 화장품 등 진출 유망

2. 진출 확대방안

□ 한-이라크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양국간 협력분위기 조성

- 한국의 좋은 이미지를 활용, 시장 주도권 확보
 - 터키의 이라크 하세미 부통령(순니파) 보호 문제로 양국간 갈등
 - * 이라크 병원, 도로, 발전 등 인프라건설 프로젝트 수주의 50%가 터키
 - 이라크 주요 부처 프로젝트 발주처는 한국기업에 큰 관심 표명
 - KOTRA-NIC 간 2013년 4월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MOU 체결로 협력기반마련
- 한국기업 이라크 진출 롤 모델 구축을 통한 이라크 재건사업에 기여
 - 대이라크 진출 롤 모델 사업(한국의 기술+이라크 수요 결합)
 - * 이라크 의료재건 사업기여 : 이라크 병원 터키 프로젝트 참여
 - * 고기술 응용 전력프로젝트 : 복합열병합발전, 신재생(풍력/태양광)
 - * 프리미엄대형주택단지 : 중산층 수요의 1만세대 이상의 주택복합단지
 - * 이라크 생활밀착형 프로젝트 : 폐수처리/정수 프로젝트, 병원 등
 - * 오일/가스 프로젝트 : 오일/가스분리, 황제거 플랜트, 파이프
 - * 제조업 육성기반 마련을 통한 현지 고용창출 및 산업간 협력모델 강화

□ 중동 최대 신 르네상스 시장, 이라크 재건 프로젝트 적극 참여

- 향후 5년간 2,750억 달러 규모 재건 프로젝트 시장 활짝 열려
 - 양국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발주처 초청, 상담을 통한 체계적 접근 필요
 - 이라크 10대 타겟 프로젝트 발주처
 - . 이라크 보건부, 전력부, 건설부, NIC, 수자원부, 내무부, 통신부, 3대 지방 정부(바그다드, 바스라, 바빌주)
- 재건 프로젝트 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 이라크 인프라 엔지니어링 협력 사업 등

□ 인근 국가를 활용한 대이라크 우회진출

- 요르단, 쿠웨이트, UAE 활용 필요
 - 이라크는 6개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우회수출 기지로 주로 서쪽의 요르단, 남쪽의 쿠웨이트, 중동 중계무역의 중심지인 UAE가 활용되고 있음
 - 이라크 해상항로의 경우 남부 바스라 지역의 움카스르 항구가 유일
- 최근 치안이 안정화 되어 우회수출보다는 대이라크 직접수출 증가추세
 - 전쟁이후 이라크 치안 불안으로 대다수의 바이어가 요르단, 쿠웨이트 등 인근국으로 거처를 옮겨 활동하였으나 최근에는 우회수출보다는 직접 수출이 증가하고 있음

◆ 요르단의 대이라크 우회수출현황

- ▶ 최근 이라크 치안이 안정되면서 각국의 대이라크 우회수출실적도 감소 추세
 - 주요 우회수출 품목으로는 의약품과 철강재, 목재류 등의 건설 자재, 그리고 유제품, 육류 등의 식료품의 비중이 높음

<최근 3년간 우회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달러)

연도	2009	2010	2011	2012.11
금액	419	215	208	200

자료원 : 요르단 통계청

- ▶ 주요 우회수출 경로
 - 자르카 자유무역지대-이라크 국경거리 : 250km(약 4시간 소요)
 - 아카바항(홍해위치) 이라크 국경거리 : 350km(약 6시간 소요)
- ▶ 요르단 내 이라크 기업현황
 - 요르단 기업관리국(통상부 산하)에 의하면, '03~'12년 동안, 등록된 이라크 기업은 5,260개사(자본액은 659백만 달러)
 - 이라크 기업은 4~5개사 정도를 거느린 그룹형태가 많으며, 주요 사업 분야는 신/중고자동차, 자동차부품, 가스, 원유산업, 발전소를 포함한 전력분야, 물관련 인프라, 수처리, 통신, 의료기기, 보안기기

◆ UAE의 대이라크 우회수출현황

- ▶ 이라크는 UAE의 재수출 시장 중 인도, 이란에 이어 3위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 대이라크 직접수출이 늘어나면서 2012년 6월 재수출 실적이 전년대비 50% 이상 감소
- UAE는 중동·아프리카 중계무역의 중심지로서 이라크로의 우회진출지로서 활용도가 높음
-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전기기기, 기계류, 철강제품, 식료품 등임

<연도별 대이라크 재수출 현황>

(단위 : US백만 달러)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6
금액	3,894.6	4,132.1	2,616.5	726.5

자료원 :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 ▶ UAE 소재 이라크 기업현황
- 2012년 기준 두바이 및 아부다비 상공회의소에 등록된 이라크 기업은 1,291개(두바이 1,179개, 아부다비 112개)임.

◆ 쿠웨이트의 대이라크 우회수출현황

- ▶ 미국·이라크 전쟁 종료 후 쿠웨이트를 통한 우회수출이 증가하였고, 2008년 최고에 이른 후 이라크의 직접 수입이 증가하면서 우회수출은 감소하는 추세
- 미국·이라크 전쟁 종료 후 식료품, 생활가전제품 등이 주요 우회수출 품목이었으나 최근에는 승용차 및 화물차 등 운송장비가 주요 우회수출 품목

<연도별 대이라크 재수출 현황>

(단위 : US백만 달러)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금액	154	135	86

자료원 : The General Secretariat the Supreme Council for Planning & Development 주: 2010년이 최신 통계임

- ▶ 향후전망
- 우회수출은 감소하고 있으나 쿠웨이트를 활용한 시장정보 수집 또는 지리적 인접성을 이용한 현지 출장 등 최소한의 현지 활동 가능

V. 이라크 진출시 유의사항

1. 철저한 보안대책 필요

□ 테러발생 감소 추세, 미군 철수 후 자국민들 간 내부 충돌 증가

- 연간 민간인 사망자 수는 지속 감소하다 최근 소폭 증가추세
 - 2003년 이라크 전쟁 발발 후, 연간 민간인 사망자 수는 2006년에 최고치를 기록한 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였으나 2012년에 전년 대비 사망자 수 증가
 - 2012년 테러 사망자 수 : 4,568명(2011년 4,144명) 아래도표는 예측치

<연간 테러에 의한 이라크 내 민간인 사망자 수 현황>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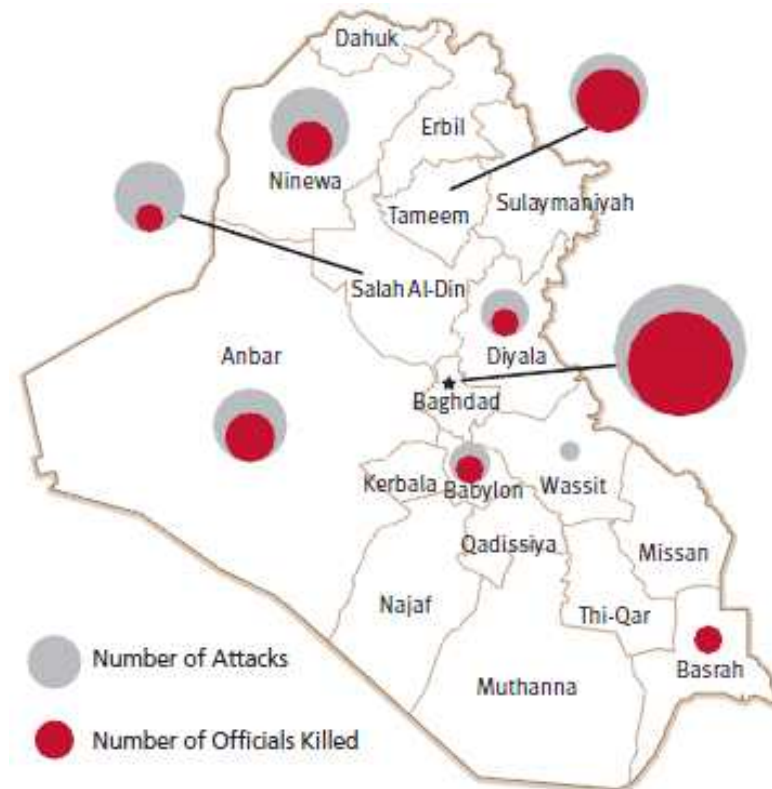
자료원 : Iraq Body Count

- 미군 철수 후 자국민들 간 테러 증가
 - 2011년 12월 미군 철수 이후 3개월 동안, 이라크에서 총 204건의 테러 발생(전년 동기대비 70% 증가)
 - 외부인에 대한 테러는 줄어들고 있지만 미군 철수 후, 이라크 자국민들 간 내부 충돌 증가
 - 여전히 월 400~600명 이상의 폭탄테러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이라크 방문시 경호대책 필수

□ 바그다드, 이라크 북부 및 서부에서 주로 테러발생

- 2012년 7~9월 중 바그다드와 중부 디얄라, 바빌론주, 북부 타밈·니네와주, 서부 안바르주에서 주로 테러발생

<2012년 3/4분기 이라크 내 테러 발생 현황>



자료원 : 미국 이라크 재건특별감사관 보고서

◆ 최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 현황

- ▶ 2010.1월 한국대사관 주변에서 발생한 폭탄테러로 대사관 유리창 완파
- ▶ 2008.3월 이라크 술레이마니아주에서 우리 건설기업의 시장조사단이 체류했던 호텔 정문에서 차량폭탄테러 발생(인명피해 없음)
- ▶ 2007.3월 이슬람 순니파 저항 세력이 말리키 총리와 기자회견 중이던 반기문 UN 사무총장을 겨냥, 박격포로 공격(인명피해 없음)
- ▶ 2007.1월 대사관 공관 경호차량 미상 세력에 의해 총격(인명피해 없음)

자료원 : 국가정보원

□ 치안 리스크 관리방안

- (프로젝트 참가) 수주전→발주처의 경호지원 / 수주후→프로젝트 금액에 포함
 - (수주전) 정부기관 등 발주처에서 경호 서비스 요청
 - (수주후) 경호비용을 프로젝트 금액에 포함
- KOTRA 주관 이라크 시장조사단 참가로 안전 확보
 - KOTRA-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NIC)과 경호서비스 제공 MOU 체결
 - 업체 수요를 감안 연 1~2회 파견
 - ※ 개별기업의 방문 수요를 사절단으로 흡수, 기업인의 안전한 방문 및 경호 비용 절감 유도
 - ☞ 경호비용(3박 4일 기준 업체당 약 13,000달러 소요) 절약
- KOTRA 이라크 유력 바이어 초청 국내 상담회 참가
 - GPP(Global Project Plaza), Auto Week, KOAA(KOrea Autoparts & Auto related industries) Show등 업종별 상담회에 이라크 바이어 초청 예정

2. 수출대금 결제 및 바이어 신용도 확인

□ 이라크 바이어와의 대금결제 유의

- 이라크의 낮은 국가 신용도 문제로 LC 활용도가 저조하여 대기업 위주로 LC거래가 가능하며, 중소기업은 T/T거래 활용
 - 주로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들이 요르단, 쿠웨이트, UAE 등 제 3국에서 개설된 LC를 이용

□ 이라크 재건사업을 빙자한 사기사건 유의

- 최근 이라크 바이어의 사전 T/T 송금 요구에 따른 사기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거래시 바이어의 신용도 확인 필요
 - 이라크 정부에서 발주한 납품계약이 성사됐다고 하면서 제3국에서의 면담을 요청하는 것이 전형적인 사기 수법임
 - 이라크 정부의 조달계약은 제3국 은행 발행 L/C 또는 이라크 국영은행 L/C를 유명은행이 지급 보증하는 형태로 의심이 가는 계약 건은 KOTRA 바그다드 무역관에 확인요청 필요

3. 공공부문의 부정부패

-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183개 국가 중 175위
 - 이라크 정부 관리들의 뇌물수수, 공공물자 횡령이 심각하여 2011년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이라크를 183개 국가 중 최하위권인 175위로 평가
 - 국제사회 인도적 지원물품이 최종 배급처까지 전달되는 중간에 횡령되거나 정치인과 유착된 현지 건설업체가 입찰경쟁도 거치지 않고 지방정부 발주사업을 수주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부패가 심각

4. IBM 유의 및 상담시 금기사항

- 무슬림과 비즈니스할 때 IBM에 유의
 - 이슬람인들은 조급한 마음을 종교적으로 금기시하기 때문에 약속 시간에 늦거나 지키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 무슬림에게 업무 진행현황을 물어볼 때 들을 수 있는 답변IBM(Insha'Allah (오직 신의 뜻), Bukran(내일), Malish Mushkilla(문제 없음))
- 종교, 정치적 쟁점에 관한 언급 자제
 - 2003년 이후 종파 간 갈등 증폭, 소속 이슬람 종파(순니·시아파)를 묻는 것은 금기 사항 중 하나
 - 이름만으로도 소속 종파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이름을 말하는 것을 꺼리며 모르는 사람과는 명함도 교환하지 않음
 - 쿠르드 독립 관련 이야기 자제 필요
 - 전쟁 이후 쿠르드 지역에 자치정부에 준하는 정부조직 구성
 - 터키, 이란 등 주변국에서는 쿠르드족 독립 시 자국내 독립운동의 확산으로 국가안보 위협을 우려하여 쿠르드 지방정부의 독립을 적극 반대

<끝>

협력무역관

◆ 암만 무역관	조상재 차장
◆ 쿠웨이트 무역관	김두식 차장
◆ 두바이 무역관	손양숙 대리

Global Market Report 13-015

떠오르는 이라크 재건시장을 선점하라

발행인 | 오영호
편집인 | 배창헌
발행월 | 2013년 2월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전화 | 02) 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13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